제목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복식연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1)
발행일	2008. 3. 31.
저자	장영수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79-97
ISBN 또는 ISSN	1229-7240

내용 요약

비수툰 부조는 다리우스 왕 초기 작품으로 주제와 형식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을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변형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묘사한 주제들과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이 약간 변화되어 표현된 것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변형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묘사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승리자의 형상들을 관찰자의 왼쪽에 묘사하는 개념, 신이 왕에게 통치권의 상징인 링을 건네는 모습, 9명의 반란자들을 묘사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술의 숫자로 전해오는 아홉을 그대로 사용한 것 등이 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전통이 약간 변화되어 표현한 것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라의 수호신을 상징했던 소침탑 모양의 장식이 비수툰에서는 다리우스왕의 왕관에 표현되어 있다.

비수툰 부조의 복식은 그 형태와 복식요소들의 묘사에 있어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비수툰 보다 후기 부조에 묘사된 복식의 형태와 복식 요소들이 몇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입은 복식은 유형에 따라 원피스형 페르시안 드레스를 입은 종족과 유목민족의 복식인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종족들로 나뉜다. 비수툰 부조의 복식사 연구에서 갖는 의미는 기원전 6세기 여러 종족들의 형상과 복식이 한 곳에 묘사되어 있어 여러 종족들의 복식을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최초의 사적 자료라는 것이다.